글| 김정근

말이 주는 상처를 치유하는 두. 권의. 책.

내 주변에 50대 중반의 한 여성이 있다. 그는 말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다. 특히 성장기에 가족 구성원들이 사용하던 말을 생각하면 지금도 싫어진다고 한다. 기억하기도 싫다고 한다. 그 가운데서도 어머니의 말이 제일 싫다고 한다. 이제 고인이 된 어머니의 말은 지금도 떠올리기가 꺼려진다는 것이다. 집에서 자란 20여 년 동안은 어머니의 말 때문에 '미칠 지경이었다' 고까지 한다. 그때는 멀리서 들리는 어머니의 말소리조차도 그렇게 듣기 싫었다고 한다.

얼른 보기에 이 여성은 좋은 집에서 나서 자랐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고, 아버지 어머니 밑에 남자형제와 여자형제가 고루 있는 매우 다복하게 보이는 가정이었다. 아버지는 남들이 알아주는 직업을 갖고 있었다. 명예도 좋고 돈도 많이 버는 그런 아버지였다. 힘든 시절이었는데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별로 없었다. 자신은 맏딸이었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에 비해 돈도 제일 많이 쓰면서 살았다. 교육도 받을 만큼 받았다. 그런데도 나서 자란 집에 대한 기억이 좋지 않다. 특히 말에 대한 기억은 지금도 되살아나 자신을 괴롭힌다.

그는 겉으론 아무 탈이 없는 사람이다. 멋있어 보이고 태도는 당당하다. 자신의 길에서 일가견을 이루었다. 독특한 주장을 자신의 방식으로 능숙하게 펼치며 잘 살고 있다. 주변에서는 비교적 돋보이는 위치에 있으며 사회적인 발언도 만만치 않다. 남들이 주목할 정도가 된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복' 이 많은 사람이라는 부러움 섞인 말도 듣는다. 그런데도 이 여성에게는 감정의 그늘이 있다. 어딘가 우울한 여운을 풍긴다. 때로 과거의 기억이 자신을 덮치기 때문이라는 말을 한다. 말에서 입은 상처가 크다는 진단을 내놓는다.

나는 호기심에서 가족들의 말 가운데 특히 어떤 부분이 귀에 거슬렸는지 물어본 적이 있다. 어머니의 말이 듣기 싫었다면 어떤 표현이 특히 그랬는지도 물어보았다. 이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지는 못했다. 자신도 꼭 집어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더구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이후 상처가 많이 희석되고 시들해져버렸다는 증언도 곁들였다. 여전히 궁금한 데가 남는다. 하지만 이 부분은 기억의 뚜껑이 열리려면 좀더 시간이 흐를 필요가 있는지 모른다.

이 여성은 '나쁜' 사람인가? 낳고 길러준 옛집에 대해 섭섭한 생각을 하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것은 '불효' 에 해당하는가? 어머니, 특히 이제는 고인이 된 친정어머니를 아름답게 추억하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것은 사실 많은 연구를 요하는 과제가 된다고 생각한다. 가족 이데올로기가 철두철미하다고 할 수 있는 우리 사회에서 좀체 건드리기 어려운 과제이기도 하다. 나는 개인

일러스트 | 신창우

이 글을 쓴 김정근은

도미니칸대학교, 컬럼비아대학교, 토론토대학교에서 문헌정보학과 교육학을 전공, 박사학위를 받았다. 부산대학교 도서관장과 대학원장을 지냈으며, 현재 같은 대학의 문헌정보학과 교수이며 '책읽기를 통한 정신치료 연구실' 의 지도교수로 있다. 주요 논문으로
〈지역사회 정신보건 문제와 독서치료〉
〈공공도서관은 독서치료의 장이 될 수 있는가〉
〈공공도서관의 독서치료 프로그램,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등이 있다.

《학대 받는 아이들》
이호철 지음 | 보리 | 288쪽 | 값 9,000원
—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나요?》
이훈구 지음 | 이야기 | 272쪽 | 값 8,000원

적으로 이제는 이같은 '성역'이 허물어지고 아픔의 원인에 대해 자유스럽게 말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는 쪽이다.

나는 이런 생각이다. 이 여성은 결코 '나쁘지' 않다. 아픈 것을 아프다고 말하는 것뿐인데 무엇이 나쁘다는 것인가. 아무리 가족관계라고 하지만 의심할 것은 의심하고 이제까지 외부에 의해 길들여진 것과는 다르게 볼 줄 알며 느낀 대로 표현하는 것은 다분히 선진적이며 개척자적인 면모가 있다. 이런 태도가 바로 아픈 마음에 대한 해결의 길을 연다. 치유의 길과도 연결이 된다. 나는 이와 같은 태도를 결코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성장과정에서 부모가 사용하는 말 때문에 상처를 입는 일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 있다. 그냥 있는 정도가 아니라 흔히 있다. 이와 관련하여 생각나는 책이 있다. 내가 전에 '우리 사회에서 상처는 어디서 오는가'를 열심히 생각하며 그런 내용을 증언하는 자료를 찾고 분류하는 작업을 시작하면서 만나게 된 책이다. 어른들이 노상 사용하는 말이 주는 상처 문제를 잘 부각시키고 있는 책이다(이 책은 말 문제 말고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다룬다). 경상북도의 한 시골 초등학교 교사 이호철이 지은 《학대받는 아이들》(보리, 2001)이 바로 그 책이다. 이 책은 지은이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수집하여 간직해 온 아이들의 글모음이 뼈대를 이룬다. 거기 아이들의 응어리진 경험이 드러나 있다. 사투리까지 포함한 속내의 표현, 어른에 대한 분노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는 고백들이다. 거기 나타나 있는 어른의 상처 주는 말을 조금만 들여다보기로 한다.

•

나는 살이 쪄서 보기에 좋지 않다. 아버지께서 고기를 사오셔서 구워 먹는데 아버지께서는 "이 돼지야, 어지간히 먹어라"하고, 형은 또 "아이고오 돼지야, 니 배에는 거지 들어 있나"하였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하하하" 웃었다. 나는 땅으로 꺼지는 기분이었다. 한없이 한없이 울기만 했다.(6학년 남학생)

•

아빠가 담배를 피운다고 재떨이를 갖다 돌라고 했다. 재떨이가 상 밑에 있어서 내 팔이 안 자랐다. 상 밑에 들어가서 재떨이를 잡아당겼다. 그런데, 아빠가 "저 가시나 와 저 지랄빙 해 쌓노"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재떨이고 뭐고 다 팍 엎어 버리고 싶었다. 그래도 나는 심부름시킨 것은 하고 간다고 갖다 드렸다. 그런데 내가 입을 삐죽거리지도 않았는데 아빠가 "가시나 뭐 카노. 수연이는 그래 뭐라 캐도 뭐든지 잘 듣는다 아나! 가시나 니는 수연이 똥 처무도 아깝다 아나!"고 했다.(4학년 여학생)

같은 맥락에서 이훈구가 지은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나요》(이야기, 2001)를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이 책은 2000년 5월 부모 토막살해로 전국을 충격 속에 몰아넣었던 명문대생 이은석에 대한 연구서다. 지은이 이훈구 교수는 사건 이후 1년여 동안 이은석 본인과의 인터뷰, 그의 일기와 편지글, 주변 인물들의 증언, 재판 방청 경험 등을 바탕으로 심리학적 관점에서 분석을 시도했다. 이은석의 경우 사건을 일으키게 되기까지 다른 문제도 많이 있었지만 역시 부모의 말이 문제였다. 이은석은 아버지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아버지가 나를 때리고 구박하고 하는 것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때리고 나서라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만 했어도 나는 행복할 수 있었어요"라고. 어머니에 대한 증언도 눈길을 끈다. 어머니와 언쟁을 하고 미리 마련해 둔 어머니의 학대와 관련된 내용을 들이밀었을 때 이야기다. 만일 그때 어머니가 단 한마디 "미안하다"라고만 해주었더라면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다 잊어버렸을 것이라고 진술한다. 이은석은 단 한마디 "미안하다는 말이 그렇게 하기가 어려웠나요"라고 이미 죽고 없는 어머니를 향해 울부짖는다.

위의 여성의 경우, 시골 아이들의 경우, 이은석의 경우는 서로 처지와 정황이 많이 다르다. 분명 사용된 말도 달랐을 것이다. 그러나 상처 주는 말이 개입되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그동안 내가 진행하는 독서치료 모임에서 이호철의 책과 이훈구의 책은 좋은 치유서로서 평가를 받고 있다. 한때 어린이와 청소년이었으며 지금은 부모가 되어 있는 참여자들은 읽고 나서 깊은 통찰의 경험을 털어놓는다.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